

코끼리와 질서

상아분신 녹각살신(象牙焚身 鹿角殺身)이란 고어가 있다. 사슴은 뿔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제 몸을 사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슴에게 뿔이 없고 코끼리에게 상아가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뿔, 그 상아는 분명 하나의 가치요, 또한 생명이기도 하다.

흔히들 코끼리를 말할 때 아프리카종과 인도산을 말한다. 귀가 크고 암·수에 다같이 상아가 있는 것이 아프리카종이고, 작은 귀에 수컷만 상아가 있는 것이 인도산이다. 몸을 숨길 곳 없는 평원에서 술한 야수의 무리 가운데서 그런 둔한 몸짓과 느린걸음으로도 코끼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야수들의 날카로운 이빨을 견뎌내는 피부의 덕분이고 그들의 단결된 집단력 때문이다. 코끼리의 군서(群棲)는 여왕코끼리를 중심으로 철저한 모계사회이다. 일단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면 여왕코끼리를 중심으로 상아를 드러낸 수컷들이 방어진을 구축한다. 어떤 위험 앞에서든 코끼리들은 개별적인 이탈을 하지 않는다.

야수의 세계는 바로 약육강식의 세계. 그러나 힘만 가지고 왕자로 군림할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코끼리 군락이다. 질서를 짓밟는 개별형태가 나타나면 여왕코끼리의 경고를 받

게 되고 그래도 거역할 때면 못 솟놈들의 집단징계를 받게 된다. 모반자는 목숨을 잃거나 종내 불구가 되어버리고 만다.

코끼리는 어느 동물보다도 원한에 대해서 오래 기억하고 있는 거수(巨獸)이다. 자기를 해롭히던 적의 형태를 칩사리 망각하지 않는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불과 30·40년 전에 있었던 민족사의 원한조차 칩사리 잊기 쉬운 우리들에게 코끼리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는 교훈을 일깨우는 듯도 하다.

코끼리는 어느 동물보다도 목표지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루에 300킬로그램쯤의 풀과 200리터에 가까운 물을 먹어야 되는 코끼리지만 자기들이 즐겨먹는 열매가 익는 계절이면 주변에 아무리 다른 먹이가 많아도 한 사코 그 열매 먹이를 찾아 머나먼 고행(苦行)의 길을 떠난다. 이것이 바로 코끼리의 생태이다. 정말로 자기가 찾아야 될 그「열매」가 무언인지 스스로 잘 알면서 그 길이 고되고 험난하다고 하여 너무나 칩사리 자기를 잊고마는 경박한 우리들. 코끼리의 인고(忍苦)는 진실이 무언인가 하는 물음에 어떤 해답을 주는 듯하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노쇠하면 스스로 늙으로 간다. 지천명(至天命)을 따르는 것이다.

